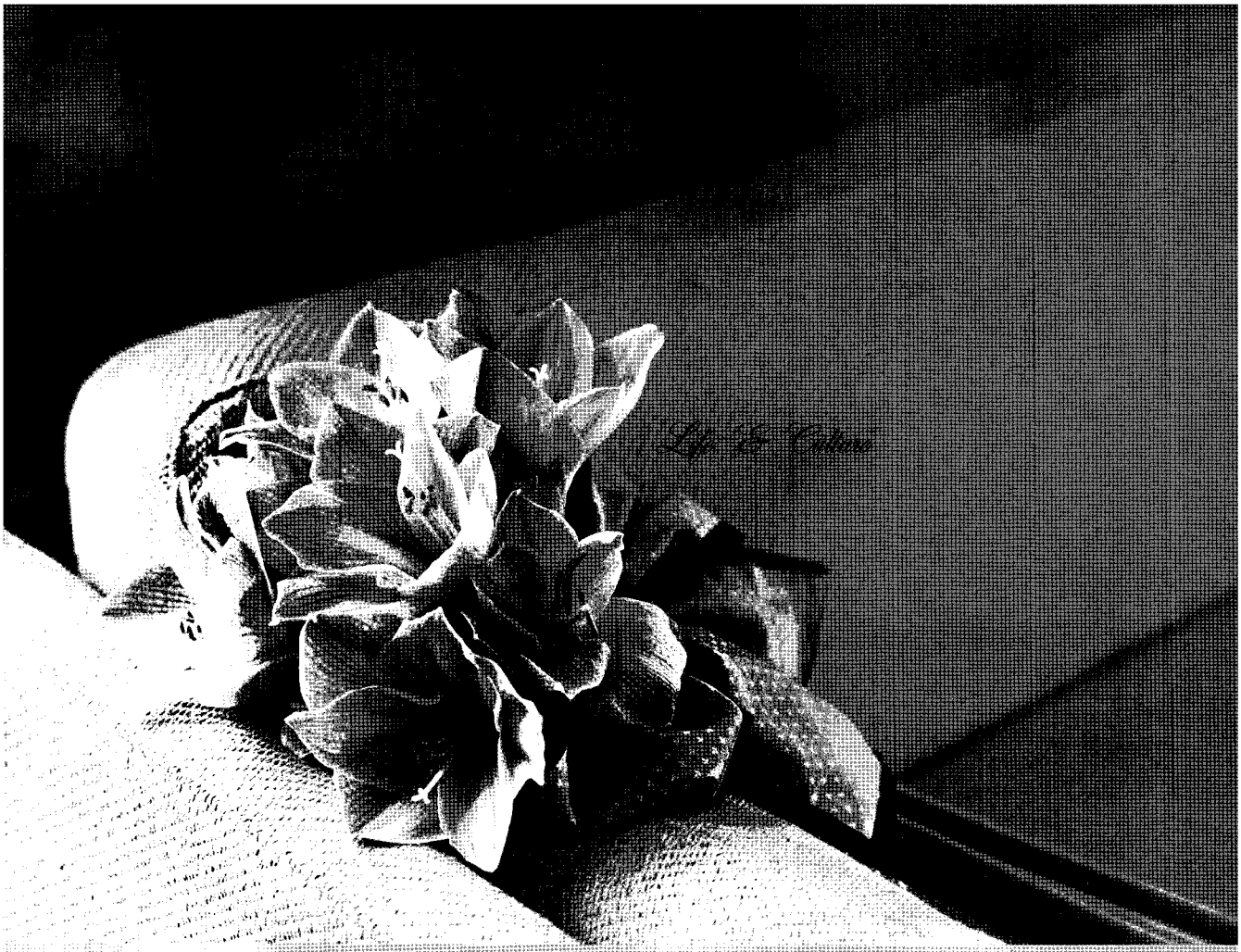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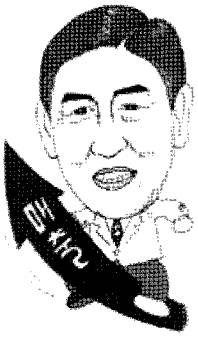


생활문화

- [위대한결단—최지성] **독한 승부사**
- [위대한결단—이태석] **수단의 슈바이처**
- [위대한결단—쿠마라지바] **동양문명사를 바꾼 파계승**
- [위대한결단—조너던 아이브] **애플을 되살린 기적의 디자이너**
- [위대한결단—안젤리나 졸리]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사랑의 전도사**
- [위대한결단—윌리암 시워드] **큰 집 한 채 값으로 알래스카를 사들이다**

Life & Culture 01 [위대한결단—최지성]

독한 승부사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마케팅의 귀재로 알려져 있다. '타고난 장사꾼', '독일 병정', '독한 승부사' 등의 별명을 가질 정도다. 그는 1977년 삼성물산에 입사했다.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판매사업본부, 메모리수출담당 이사, 회장비서실 전략1팀장, 반도체판매사업부장,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을 거쳐서 32년만에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로 등극했다. 대부분의 삼성전자 사장들이 이공계 출신인데 비해 무역학을 전공한 인문계 출신으로 그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전자의 문외한으로 반도체 영업맨이 되자 1000여 페이지짜리의 이라는 책을 통째로 외우면서 '지독한 승부근성'으로 업무에 매달렸다. 1985년 그가 반도체를 팔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1인 사무소장으로 부임했을 때, 유럽 시장은 미개척지와 같았다.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앞에는 한 박스에 64K D램 칩 1만 개가 들어 있는 박스 3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도 막막해서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전자', '컴퓨터'란 글자만 보이면 전화를 걸어 무조건 찾아갔다. 그때부터 그는 '유럽의 보부상(褓負商)'이 되어 전 유럽을 누비고 다녔다. 알프스 산맥을 넘다가 차가 반파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프랑스에서는 트레일러에 받쳐서 차가 완파되는 사고를 당하는 등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렇게 혼자서 상상을 초월하는 강행군을 감행한 끝에 유럽 부임 첫해인 1985년에 100만 달러, 1986년 500만 달러, 1987년 2500만 달러, 1988년엔 1억 2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매년 500%씩 판매를 신장시켰다. 그것은 그의 철저한 승부 근성의 결과였다. 2004년, 디지털미디어 총괄을 맡은 최지성은 그해에 19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TV와 모니터 등 영상 분야에서 소니를 제치고 삼성을 글로벌 톱으로 올려놓으면서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2007년 정보통신총괄 사장을 맡은 최지성은 전임자들이 주력했던 고급 휴대전화 정책을 버리고 노키아를 겨냥해 중저가폰 사업에도 힘썼다. 그 결과 2006~2008년 삼성전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1% 포인트 늘어 16.7%에 이르렀고 1위인 노키아를 바짝 뒤쫓기 시작했다.엔지니어출신 사장들이 즐비한 삼성전자에서 인문학도 출신으로 놀라운 실적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내자 대내외에서 그를 삼성전자를 이끌고 갈 리더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2009년 최지성 정보통신총괄 사장은 디지털미디어(DM) 부문까지 총괄한 부문장 사장으로 임명됐고, 2010년 마침내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로 등극했다. 최지성 부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1'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 LCD 패널 · TV · 모니터 · 스마트폰 · 스마트패드(태블릿 PC) 등 모든 사업을 갖고 있어 IT산업의 중심에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이 있다."그것은 세계 1위의 IT업체로 올라선 삼성전자가 선발 사업자로서 'Market Creator(시장 창조자)'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자신감의 피력이다. 그는 삼성전자를 2015년 2000억달러, 2020년까지 연간 4000억 달러 매출을 올릴 것을 천명했다. 2010년 미국 경제지 〈포춘〉은 최지성 부회장을 '올해의 기업인'으로 선정했다.

Life & Culture 02 [위대한결단—이태석]

수단의 슈바이처

의사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그런 사람이 37살에 가톨릭 사제가 되었고 23년동안 내전이 벌어지고 아프리카 수단으로 날아갔다. "한국에도 어려운 벽지가 많은데 왜 꼭 아프리카로 가야만 하나?" 삯바느질을 하며 10남매를 키운 홀어머니가 묻자 이태석(1962~2010) 신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기에 나라도 가야 합니다." 이태석 신부가 도착한 수단은 내전으로 200만 명이상이 죽었고 전쟁 때문에 여기저기 지뢰가 깔려 있어 팔다리가 잘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아이들이 열병에 걸려 신음하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마당에 물을 뿌려놓고 열이 내리길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가 도착한 톤즈 마을은 남부 수단에서도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었다. 말라리아와 콜레라가 극성을 부리는 곳, 성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곳, 물도 식량도 턱없이 부족한 곳, 그곳이 톤즈였다. 그곳 사람들은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며 잘 해야 하루에 수수죽 1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진료소라는 곳으로 가보니 흙과 대나무로 지은 세 칸짜리 움막이었는데 약품도 의료도구도 거의 없었다. 믿음의 용기로 그곳을 찾아 갔지만 막상 이 신부는 어디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 한없이 막막하기만 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는 짐을 풀기가 무섭게 주변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기운을 차리고 흙벽돌과 약간의 시멘트로 두 평 남짓한 그럴싸한 진료실 겸 처치실을 만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그의 자선활동은 나병 환자들과 결핵 환자들을 보살피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브라스밴드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속적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벌였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마을을 돌아다니며, 이동진료를 하며 8년의 시간을 보냈다. 소년병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상처 입은 아이들 손에 총 대신 악기를 쥐어주고 그들만의 브라스밴드를 만들어서 음악으로 전쟁에 지친 그들의 영혼을 달래주었다.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가르쳤으며, 현지어인 딩카어를 열심히 배웠고, 밤잠을 줄여가며 환자들을 돌봤다. 현지인들은 이 신부를 '쫄리 신부님'이란 애칭으로 부르며 그를 성자처럼 따랐다. 그런데 이 신부는 의료활동을 하던 중 2008년 10월, 2년마다 한번씩 들리는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이 신부는 말기암 선고를 받고도 "톤즈에서 우물 파다 왔어요, 마저 다 해야하는데..." 라면서 수단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의지가 워낙 강해서 주변 사람들이 뜯어말리느라 애를 먹을 정도였다. 그는 투병 중에도 자선공연도 하고 각 지역의 성당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과 지원을 호소했다. 결국 그는 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2010년 1월 14일 세상을 떠났다.2010년 4월 11일, KBS 스페셜로 방영 된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와 이를 재편집해 2010년 9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는 40만이 넘는 관객을 불러모았다. 그는 톤즈 사람들에게 쫄리 신부님이라고 불리는 다정한 친구였고, 의사였고, 선생님였고, 지휘자였고, 아버지였다. 톤즈마을 신자 1만여 명뿐 아니라 수많은 주민들이 '쫄리 신부'를 잊지 않고 있다.

Life & Culture 03 [위대한결단—쿠마라지바]

동양문명사를 바꾼 파계승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다. 과연 그럴까? 번역으로 세계역사를 바꾼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쿠마라지바(Kumarajiva 鳩摩羅什, 343~413)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이자 탁월한 번역가로서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가 번역한 책은 380권에 달하는 불교 경전이다. 그의 손길을 거친 경전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불교문명의 기초가 닦여졌다. 쿠마라지바는 실크로드에서 중간무역으로 융성한 쿠차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는 쿠차의 공주와 인도에서 피신해온 왕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7살 어린나이에 간다라로 유학을 가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웠고 불교를 공부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서역 최고의 승려가 됐다. 당시 중국은 5호 16국(5胡16國)의 시대라 불리는 여러 민족들의 왕조가 난립하던 시기였다. 383년, 전진(前秦)의 장수 여광(呂光)은 7만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쿠차를 정벌한다. 쿠마라지바는 포로가 돼 중국으로 끌려오는 신세가 됐다. 여광은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추앙 받던 쿠마라지바를 파계(破戒)시킨다. 여광은 연금생활을 하고 있는 쿠마라지바의 숙소에 여자를 들여보내고 결혼하지 않으면 여자를 죽인다고 협박했는데 쿠마라지바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 파계하고 만다. 여광이 그토록 쿠마라지바를 파계시킨 것은 그를 믿고 따르는 쿠차왕국 백성에게 최고의 승려인 그가 파계한 것을 보여줌으로서 쿠차왕국 백성들의 불심을 흐트려 놓기 위함이었다. 당시의 파계는 매우 엄격한 것이어서 최고의 승려였던 그에게는 죽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다. 그때 그의 나이 36살이었다.쿠마라지바는 17년 동안의 연금생활을 하다가 401년 후진(後秦)왕 요흥(姚興)에게 국사(國師)로 봉해지고 경전의 번역을 명령받는다. 그때 쿠마라지바의 나이 53세.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불경 번역에 바치기로 결심한다. 그는 '금강경', '화엄경', '유마경(維摩經)', '법화경', '성실론(誠實論)', '십송률(十誦律)',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 '아미타경(阿彌陀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중론(中論)',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등의 경전 380여 권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전대미문의 대 번역 사업을 시작한다.그가 번역한 최고의 경전은 중국문명의 사상사적 방향을 바꿔 놓았다. 쿠마라지바 이전에도 번역된 불경이 더러 있었지만 원전이 불충실하고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쿠마라지바는 산스크리트 불경을 웅대한 한역(漢譯) 대장경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서 쿠마라지바의 번역경전을 통해 중국 불교는 교리해석 및 종파형성의 길을 걷게 된다. 14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대로 읽히고 있는 이 번역경전은 유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중국문명의 근본을 뒤바꿔 놓았다. 쿠마라지바의 번역경전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중국인들의 왕토(王土)사상을 정토(淨土)사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지상의 모든 것은 왕에게 귀속된다는 왕토사상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정토의 대동(大同)세계 앞에서 그 절대적인 권위를 잃었다. 쿠마라지바는 번역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번역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남이 씹은 밥을 받아서 내 입으로 씹어 다른 이에게 먹게 하는 과정과 같은 경전 번역의 고충과 난해함 그리고 깨달음 잘못하면 구역질나고 잘못하면 내가 삼켜버리고 잘못하면 상한 독을 첨가하는 것이다."

Life & Culture 04 [위대한결단—조너던 아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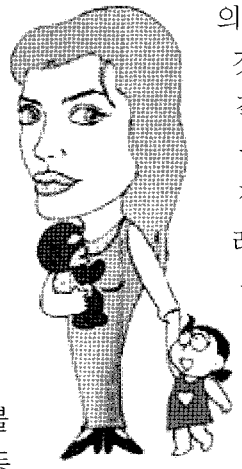
애플을 되살린 기적의 디자이너

오늘날 애플은 가장 빛나고 잘나가는 세계적 기업이다. 거의 20년간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차지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시가 총액에서 앞질렀다. 그리고 세계 최고 IT기업으로 등극한 삼성전자보다 매출액은 4분의 1수준이면서 시가 총액은 2.5배에 달한다. 그러나 애플은 10년 전에만 해도 퇴출 기업 명단에 올라 있는 위태위태한 기업이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들어섰으나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애플 이사진은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Pixar)를 차려 토이스토리 등 3D 애니메이션으로 대박행진을 하고 있던 잡스를 최고경영자로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잡스는 11년 만에 다시 애플의 CEO가 되었으나 일 년에 1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애플을 다시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그때 애플을 기사회생 시킨 한 천재가 나타났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애플의 디자인 혁명을 일으킨 조너던 아이브(Jonathan Ive : 1967~)다. 런던에서 태어나 뉴캐슬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아이브는 탠저린(Tangerine)이라는 회사를 창업해 파워툴부터 텔레비전에 이르는 다양한 디자인 컨설팅을 했다. 그러던 중 1992년 그의 고객이었던 애플에 스카우트 되면서 애플과 연을 맺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은 큰 빛을 보지 못했다. 당시 애플은 쇠락해가고 있는 회사여서 그에게 재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잡스가 복귀하면서부터였다. 잡스는 아이브의 재능을 한 눈에 알아보았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던 아이맥 디자인의 전권을 그에게 맡긴다. 아이브는 다른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에 접근했다. 그는 제작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바꾸고 새로운 도구와 재질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시도했다. 1998년 아이브는 역사적 제품인 아이북(iBook)을 탄생시킨데 이어 파워북 G4, 아이팟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히트작들을 만들어내면서 애플의 중흥을 이끌었고 전 세계 산업 디자이너들의 모범이 되어갔다.아이브는 기술적 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을 극한까지 몰고 가서 그것을 반드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특이한 재능의 소유자다. 그는 새로운 재질과 프로세스, 그리고 제품 아키텍처를 만들

어냄으로서 애플의 혁신을 이끌어냈다. 아이브와 그의 디자인팀은 언제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문화 속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시킨다. 플라스틱 폴리머 기술을 응용해서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맥이다. 또 서로 다른 플라스틱을 동시에 사출할 수 있는 트윈 슈팅(Twin shooting) 기법이 개발되자 곧바로 이 기술을 도입해서 아이팟(iPod)이라는 대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재료와 재질,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 및 기술을 자신의 디자인에 접목시키면서 또 다른 '애플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애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잡스 이후의 후계 구도를 따질 때 아이브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브가 잡스와 같은 강렬한 카리스마나 시대의 커다란 흐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제품 디자인에 대한 그의 카리스마와 창의성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가지고 있지 못한 애플만의 최고의 자산이자 덕목이다.

Life & Culture 05 [위대한결단—안젤리나 졸리]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사랑의 전도사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 Voight :1975~)는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100'에 단골로 추천되고 있는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이다. 그녀는 할리우드 최고의 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와 커플 관계가 됨으로서 전 세계인들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할리우드 스타로 살아가지 않기를 선언했다. 영화배우인 아버지 존 보이트의 딸로 태어난 졸리는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심리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배우로서 성공하면서 열정적 삶을 살기 시작했다. 졸리는 캄보디아에서 영화촬영을 하다가 그 나라 사람들의 고통스런 삶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다. 캄보디아 지뢰밭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졸리는 유엔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인도주의적 봉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2001년 이래 그녀는 1년에 두 세 차례씩 20여 개국이 넘는 국가의 난민촌을 방문해서 빈민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탄 여배우라는 타이틀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반추해 영화 속에서 표현하는 일이 흥미 있을 뿐입니다. 어두운 성장과정을 겪었지만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장소나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기 외에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졸리는 아시아 · 아프리카 빈민국의 소년 소녀들을 양자로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우기 시작했

다.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아들 매덕스를 비롯해 베트남에서 입양한 아들 팍스, 에티오피아에서 입양한 딸 자하라, 아이티 지진 고아인 딸 레아 등 네 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 그녀는 브래드 피트와의 사이에서 샤일로 누벨이라는 딸을 낳고 쌍둥이인 녹스리온과 비비안 마셸린을 낳아서 일곱 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브래드 피트는 그러한 졸리의 인도주의적인 봉사 활동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세계의 정치적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는 점차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브래드 피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안젤리나는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여자야.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처음 봤어. 안젤리나 덕분에 나는 삶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지. 영화를 찍거나 잡지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었어." 두 사람은 2006년 졸리-피트 재단을 만들어 이 재단을 통해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 매년 100만 달러씩을 기부하고 있다. 그들은 스케줄이 허용하는 한 수시로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없는 난민촌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최고의 스타부부는 아예 '브란젤리나(Branjelina)'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스타 커플의 귀감이 되었고 유엔 협회에서 수여하는 '세계인도주의자상'까지 수상했다. 졸리는 수입의 3분의1을 자선사업에 기부하고 있는데 입양 자녀들의 출신국가에 아이들의 이름을 딴 의료센터를 세우고 꾸준한 극빈자 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는 2009년 포보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순위 중 1위를 차지했다.

Life & Culture 06 [위대한결단—윌리암 시워드]

큰 집 한 채 값으로 알래스카를 사들이다

알래스카는 '자원의 보고'이자 '군사 요충지'로서 미국의 북방을 지켜주는 요새이다. 남한 면적의 15배, 텍사스의 두 배, 미국 본토의 1/5에 해당하는 큰 땅덩어리이고 석유를 비롯해서 석탄, 금, 아연, 은, 구리가 무진장 묻혀 있는 곳이다. 이 보물 같은 땅을 미국은 1867년 10월 18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였다. 알래스카는 1741년, 러시아의 황제 표트르 1세의 의뢰를 받은 덴마크의 탐험가 비투스 조나센 베링이 북태평양을 탐험하다 발견해서 러시아 영토로 편입 됐던 곳이다. 베링이 이끄는 러시아 선단이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은 그곳을 '알류슈카' 즉, '위대한 땅'이 라고 부르고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이 땅을 사냥과 모피 공급지 정도로만 활용했다.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암 시워드(William H. Seward :1801-1872)는 알래스카의 진면목을 알아보았다. 그는 대통령 앤드류 존슨에게 알래스카 매

입을 건의 했고, 제가를 얻어서 알래스카 매입 교섭에 들어갔다. 크림전쟁으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알렉산드르 2세는 러시아 본토로부터 떨어져있는 알래스카를 관리하는 것이 버거운 형편이었다. 게다가 해상강국 영국에게 빼앗길 염려도 있고 해서 미국에게 팔아넘기기로 결정했다. 윌리엄 시워드가 '알래스카 매입 법안'을 제출하자 미국 상원은 난리가 났다. "왜 그렇게 큰 얼음통(Ice Box)이 필요한 것이오?" 윌리엄 시워드는 이렇게 말하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의원 여러분! 나는 눈 덮인 동토의 땅 알래스카를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래스카는 그 안에 무한한 보물을 감추고 있습니다. 나는 그 보물을 사자는 것입니다." 난상토론 끝에 법안은 아슬아슬하게 단 1표 차로 비준됐다. 매입가는 에이커 당 2센트에 해당하는 값인 720만 달러였다. 공짜나 다름없는 값이었지만 미국인들은 불모지를 사는 데 국고를 낭비했다고 비난하며 알래스카를 산 것을 시워드의 바보짓(Seward's folly)이라고 비웃고 알래스카를 그 이름 대신 시워드의 아이스박스(Seward's Ice Box)라고 불렀다. 그러나 의회 조사단이 알래스카를 탐사한 결과는 놀라웠다. 엄청난 매장량의 지하자원, 풍요로운 어장과 울창한 원시림 등 그야말로 자원의 보고였다. 더구나 13년 후인 1890년 최초로 막대한 금맥이 발견되면서 이 땅은 골드러시를 이루자 언론은 알래스카를 아이스박스가 아닌 '황금박스'라고 대서특필했다. 상하양원 국회의원들이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를 찾아가 정중히 사과를 했다. 알래스카를 사들인 결단을 내린 윌리암 시워드는 미국의 영웅이 됐다. 1959년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가 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가 들어서자 알래스카는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다. 공격 및 방어용 미사일이 밀집 배치됨으로서 이 동토의 땅은 미국의 '방패'가 됐다. 만약 알래스카를 사들이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국방안보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1968년 푸르도 만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되면서 알래스카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했다. 총연장 1300km에 이르는 알래스카 횡단 송유관이 개설된 이래 석유 생산에서 텍사스에 이어 2위를 자랑하고 있다. 러시아는 너무 큰 것을 잃고 미국은 너무 큰 횡재를 한 셈이다.